



J프로젝트, 새만금 '암초'

사업 내용·시기 중복...경쟁 불가피 정부, 선택과 집중·조정 서둘러야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남도에 추진하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능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J프로젝트처럼 간척지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지를 겨냥한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데다, 사업시기도 서로 겹치는 등 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역간 경쟁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는 오는 2011년까지 새만금에 새로 만들어지는 8천560만여 평의 부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관광을 활

평의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모두 35조 원을 들여 F1자동차경기장과 카지노,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국과 일본 등지의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부지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 등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6월경

에나 구체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발전은 위해서는 골프장을 비롯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일정부분 겹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정된 관광객을 놓고 전남과 전북 두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용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은 "J프로젝트는 이미 구체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후와 자연경관 등도 좋은 모든 여건에서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 내부 부지가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로 조성된다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광태·박준영씨 공동 출마 회견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공동 출마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공동번영 선언문'을 발표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선거 초반 '기세잡기'

우리-민주-한나라 잇따라 광주·전남 출정식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인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세몰이도 나왔다.

호남 팽주자리를 노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권역별로 필승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안겨주며 '민심잡기'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로 사실상 광주·전남 선거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26일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공동번영 선언'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27일 전남당원 결의대회를 갖고 지지를 상응을 피한다. <관련기사 4면>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 유통과 가공산업 및 문화산업 육성, 인재 양성과 복지 향상 등에 변함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과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완도, 영암, 담양 순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 지방선거 공천자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당 지도도 확산에



조선대학교 겸상대학 중국비즈니스 전문대학 (MCSB)

미래당신의 모습은 "최고의 중국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중국 현지 인턴십 취업을 100% 달성

- 중국 현지 대학 학업과 취업 연계(연수 100%)
- 취업지원체계 구축(취업비)
- 학생 장학 지원사업
- 학생 동아리 지원
- 어학특강반 개설 및 자격취득 지원
- 전문가 초청강연회 및 발표회
- 중국취업가 자격이론

국제적 경쟁력 함양을 위한 필수교육에 포함된 조선대학교 겸상대학으로 여러분의 꿈을 키워주세요.

주요 프로그램 :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 비즈니스, 중국 취업, 중국 인턴십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동 1-1 조선대학교 겸상대학

문의 : 062-220-5000

현대차 처리 오늘 판가름

검찰총장에 보고서 제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이나 아들인 정희선 기아차 사장 중 한 명의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 회장 부자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한 수사팀의 의견을 모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릴 계획이다. 정 총장이 결심하면 일장대로 간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실령 총장이 오늘 결심을 해도 수사팀이 받듯게 액션(사전구속영장 청구)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정 총장의 방침이 굳어지면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등에 연루된 임직원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권일기자 cki@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는 1984년 설립된 사립 대학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대로 100

문의 : 062-220-5000

배용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의 'J프로젝트' 소개

호남 세출제

배용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은 "J프로젝트는 이미 구체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후와 자연경관 등도 좋은 모든 여건에서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 내부 부지가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로 조성된다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진도 홍주 '루비콘'으로 불러주세요

진도군 브랜드명 확정

진도의 특산품인 '진도 홍주'의 새 이름이 '루비콘(Rubicon)'으로 확정됐다.

진도군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도홍주의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이름을 '루비콘'으로 확정하고 특허출원과 함께 명품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루비(ruby)와 유니콘(unicorn)의 합성어인 루비콘은 진도 홍주의 루비 빛깔과 신비로운 생명체인 유니콘의 만남으로 '붉은 홍주가 신비로운 생명체와 같다'는 의미에서 이 같이 정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2015년까지 줄기세포 3대 강국 추진"

우리나라가 2015년 줄기세포 연구 부문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산학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줄기세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줄기세포 연구기획단은 25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연구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 체계적인 임상연구 추진,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 생명윤리 정착 등을 통해 세계 줄기세포시장의 15%를 점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범부처 참여기회 트럼시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연구 종합계획'을 7월까지 수립기로 했다. /연합뉴스